

# 외국인 노동자 H의 삶과 정보빈곤

## Life and Information Poverty of Foreign Labor 'H'

이 제 환(Jae-Whoan Lee)\*

윤 유 라(You-Ra Youn)\*\*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정보행태적 관점에서 조망해 보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집단 중에서 단일 민족집단으로 가장 커다란 규모로 파악된 조선족 노동자 집단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족 노동자의 일상적 삶에 있어서 정보가 갖는 의미를 찾고자 하였으며 그들이 처해 있는 정보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조선족 출신의 미등록 노동자 'H'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 사례연구의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집중적인 참여관찰을 통해 H의 삶과 정보행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H의 고민을 정보요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H가 처해있는 정보빈곤의 실태와 유발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끝으로 H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정보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lives of foreign labor in S.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information behavior. Special concern was on investigating both meaning and value of information in their everyday lives. Also discussed was information poverty which most of them have been faced with. To this end, a typical foreign labor sample, who were named as 'H', was carefully chosen, observed, and interviewed. Through the investigation this study found out there were many barriers that had negative influences on their active information seeking and use. Also found out is most of the barriers comes from the individual factors as well as socio-structural one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basic strategies to improve and promote their information welfare.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노동자, 정보행태, 정보빈곤, 정보환경, 정보복지

Foreign Labor,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Poverty, Information Environment,  
Information Welfare

---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win8138@pusan.ac.kr)

논문접수일자 2005년 5월 21일 논문심사일자 2005년 6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6월 19일

## 1. 논의를 시작하며

2003년 초가을부터 재일동포의 정보행태와 정보빈곤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주류 사회로부터의 각종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질곡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60여만 재일동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일상적 고뇌와 삶의 족적을 정보행태의 관점에서 추적하고 가늠해 보는 작업에 우리 연구팀은 2년 가까이 매달려 있다. 이제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우리 연구팀은 재일동포의 삶을 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려면 그들이 처해있는 만성적 정보빈곤의 굴레를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일동포사회의 낙후된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행태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연구에 대해 언급하는 까닭은 우리 연구팀으로 하여금 우리 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서두르게 만든 계기가 재일동포의 삶을 정보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응어리진 ‘깨달음’과 ‘부끄러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동족이 일본인으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 편견과 차별을 목도하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던만, 막상 고국의 현실로 눈을 돌려보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차별은 일본인 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부끄러움, 그랬다.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의 침통함을 가슴에 안고 우리 연구팀은 이 연구를 서둘렀다. 우리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우리 땅으로 건너와 비인간적인 대우와 굴욕적인 삶을 견뎌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애환어린 삶속으로 파고들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충과 애환을 정보의 관점에서 그려내고자 하였다. 그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애환과 고충을 밝혀내어 그들이 당면해 있는 정보빈곤의 실태를 규명해 보고, 그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정보복지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는 소외집단 특히 민족적 소외집단이 봉착하는 정보빈곤의 문제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험을 사례로 하여 다루고 있다.

## 2. 논의의 대상과 방법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땅에서 사회적 소수자로서 겪고 있는 차별과 핍박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상흔이 되었다. 당연히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을 비롯한 관련 학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들에 의해 생산된 연구물들을 내용에 따라 유형화하면 크게 둘로 나뉘어 지는데, 첫째는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접근한 연구물<sup>1)</sup>이며, 둘째는 복지정책적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연구물<sup>2)</sup>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연구물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아쉽게도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그들의 눈높이에서 접근하여 일상생활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러한 일상적 문제를 풀어가고자 시도한 흔적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단일 민족국가 안에서 복합적 소수민족집단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경우 외모와 언어 그리고 문화와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주류 사회와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정신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보편적으로 겪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외의 실체는 그들의 일상에 접근하여 그들의 눈높이에서 파헤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지난하다. 그들과 함께 일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파헤쳐볼 때 비로소 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고충과 애환의 실체를 인지하고, 그러한 일상적 고민 중에서 정보로부터의 소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내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참여관찰이었다.

이 연구에 착수하면서 우리는 조금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참여관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구성하는 민족 집단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동일한 민족 집단 내에서도 구성원마다 개인적 특성과 성장 환경에 따라 의식과 행태가 천차만별일 수 있으며, 특히, 그들의 정보행태는 인구학적 특성은 물론이고 인지적 그리고 감성적 특성에 따라 백인백색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참여관찰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한동안 고민에 빠져 들었다. 그러다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회문화권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적응과 정착이라는 목적을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통적인 속성을 보이게 된다”는 사회학자들의 논리를 참조하여 우리 연구의 초점을 일단 그러한 공통적 속성을 파헤치는 작업에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 집단 가운데 단일 민족 집단으로는 가장 커다란 규모인 중국인 노동자 집단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팀의 언어적 한계<sup>3)</sup>에 더해 참여관찰의 대상이 되어

1) 대표적인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설동훈, “국내 생산가능직 이주노동자의 차별대우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간 노무사》 통권 3호(2003. 가을·겨울), pp.52-67;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와 대책”, 《인권과 평화》 제2권1호(2001), pp.53-87; 설동훈, “한국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대책”, 《신화사상》 113(2001.6), pp.49-75; 고유미, “외국인력 고용 현황과 정책 변화”, 《민족연구》 제12호 (2004.3), pp.17-34; 권혁근, “외국인 노동자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釜山法潮》 제20집 (2003. 1), pp.168-174; 이종두, “외국인 노동자 정책 변화와 시민단체”, 《민족연구》 제12호 (2004.3), pp.35-48.

2) 외국인 노동자 관련 복지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각 지원센터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상담사례집을 비롯하여 각종 연구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송병준 외, 『외국인 노동자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석현호 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2003; 정귀순, “부산지역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과제”, 《釜山法潮》 제20집 (2003. 1), pp.152-167;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 실태 및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한국국제노동재단,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한국국제노동재단 <http://www.koilaf.org/>

줄 중국인 자원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중국인 노동자 집단의 50%를 점하고 있는 '조선족 출신 중국인 노동자'를 참여관찰의 대상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조선족 출신 중국인 노동자의 경우 외모나 언어 그리고 관습이나 문화 등의 면에서 전체 외국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표본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처해있는 법적, 제도적, 사회복지적 환경은 여타 외국인 노동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선행연구에서의 조사 결과<sup>4)</sup>에 의지하여 우선 '조선족 노동자'를 대상으로 1차 연구에 착수하고 후속연구에서 조사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연구팀은 조선족 출신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집중적인 참여관찰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물론 단 한 명의 샘플을 통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정보행태와 정보빈곤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무리를 안고 있다. 특히, 연구대상 집단의 다양한 속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단 한

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발톱 만지기'식의 편협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한계를 조금이나마 넘어서고자 우리는 먼저 외국인 노동자 집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섭렵하면서 그들의 현황과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어, 그들의 일상적 삶에 대한 간접 체험의 효과를 얻고자 전형적인 외국인 노동자 모임에 참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04년 9월부터 약 2달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글교실 수업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 노동자를 지근에서 관찰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사전 조사 단계를 거치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애환과 고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갖출 수 있었다.<sup>5)</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번 1단계 연구를 위한 참여관찰의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선정 한 사람은 '조선족' 여인 H였다. H는 약 12년 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갖은 고초를 겪

- 
- 3)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중국어에 능통한 연구요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4) 조선족 노동자가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02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거주하는 조선족 노동자의 수는 8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의 1/4에 해당하는 커다란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국적으로는 중국인 노동자로 간주되고 있는데, 그들 중 다수가 미등록 노동자(전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36.8%)로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조선족이라 하면 우리는 의례히 한국 사람이라 인식 하기 쉽다. 조선족이 한말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삶의 터전을 찾아 중국으로 건너가 그 곳에서 생을 유지하고 있는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조선족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을 산출할 때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 속에 조선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처럼 조선족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정의되어 있다. 설동훈, "한국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대책", 《신학사상》 113(2001.6), pp.49-75; 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한국국제노동재단,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 5) 우리는 P도시의 S성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글교실에 강사 겸 수업보조원으로 참가하면서 6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만날 수 있었다. 한국에 온지 2년이 지난 29살의 내성적 성격을 가진 A, 20살의 어린 나이에 한국에 노동을 하러 왔지만 학업에 대한 열기가 대단한 B, 수더분한 성격의 유부남 C, 새로운 선생님께서 먼저 관심어린 눈빛을 보낸 마음씨 착한 아저씨 D, 건강해 보이지만 자주 감기로 고생하는 E, 단어장울 항상 가지고 다니며 적극적으로 한글공부를 하는 F 등, 이들 6명의 필리핀인 노동자를 통해, 비록 피상적이거나 우리는 우리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일상적 삶의 실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다.

고 지금은 서울 외곽의 건축공사장 함바집(임시 식당)에서 식당일을 거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였다. H에 대한 참여관찰은 2004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그리고 2005년 1월 9일에서 1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박 4일씩 모두 8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기간동안 우리는 H의 거주지에서 그녀와 함께 생활하며 그녀의 일상적 삶을 관찰하였다. H가 겪어온 삶의 역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특히 그녀의 고충과 애환 그리고 장래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H와의 모든 대화 내용은 그녀의 동의 하에 녹음하였고 후에 녹취 과정을 통해 정리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 파악한 H의 일상적 고민과 정보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의 구체적인 사례는 이 글의 4장과 5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

고자 한다.

### 3.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987년에는 6,409명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367,158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3D 업종과 3S 직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급속히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위험하고, 단순하며, 때로는 더럽기까지 한 제조업 관련 일들을 주로 맡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본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고학력자<sup>6)</sup>나 중상류층의 생활을 누리던 이들<sup>7)</sup>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일자

〈표 1〉 국내 외국인력 현황<sup>8)</sup>

출신국	외국인력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미등록외국인	
		남	여	남	여	남	여
중국	169,972	9,105	7,173	3,047	1,236	82,604	66,742
인도네시아	24,117	5,090	1,271	1,508	375	12,251	3,117
태국	22,028	1,742	162	288	48	11,722	8,212
필리핀	21,992	1,621	604	1,295	283	11,632	6,496
베트남	19,082	1,235	983	1,738	815	9,953	4,492
방글라데시	18,008	1,247	15	593	0	15,634	536
기타(몽골 등)	...	...	...	...	...	...	...

- 6) 2003년 6월 14일 MBC의 모 프로그램은 모스크바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던 엘리트 계급의 한 사람이었던 몽골 여인 '울지'의 삶을 방영하였다. 가슴 아픈 사연이야 그녀뿐이겠냐 만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학업을 접고 영세한 공장에서 잡무를 하며, 어두컴컴한 방 한 칸에서 생활하는 그녀의 모습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 7) 몽고에서 어머니는 의사로 아버지는 국회의원으로 훈장을 받으며 명예롭게 퇴직한 '미라'는 산부인과 의사였다. 지금은 한국에서 스티커 만드는 공장, 전화기 만드는 공장, 벌레 소독일 등을 하면서 한달 6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국제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http://www.migrant.or.kr/cgi-bin/cz/CrazyWWWBoard.cgi?db=migrant43\(2002/04/11\)](http://www.migrant.or.kr/cgi-bin/cz/CrazyWWWBoard.cgi?db=migrant43(2002/04/11))) 이주노동자 운동 중 '미라의 고백'에서)
- 8) 2003년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와 노동부 자료(<http://www.molab.go.kr/source/issue/issueForigner05.jsp>)를 바탕으로 재구성.

리를 찾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가 기피하는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모습에서 1960-70년대 우리나라 살림이 어려웠던 시절 일거리를 찾아 독일로 일본으로 혹은 남미로 건너갔던 우리의 삼촌 또는 이모들의 모습을 본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 중 대다수가 미등록 노동자로 불법 체류자의 신분에 있다는 사실이다. 표 1에 나타나듯이, 2002년을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미등록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0%에 육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은 고사하고 관계당국의 단속에 걸려 임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합법 취업자 혹은 산업연수생과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하여 떳떳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우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원인은 우리의 잘못된 제도와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1991년 10월 법무부 훈령 제255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등에관한업무지침'에 의거하여 동남아 등 국내 기업이 진출해있는 지역의 현지 노동자들이 국내의 모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여기서 산업연수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기술을 배우고 습득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주들이 이러

한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로 연수를 통해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보충하기 어려운 단순 노동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동일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산업연수생은 훨씬 적은 급여에 보다 많은 시간을 노동해야 했기에 그들 중 다수가 산업연수생의 자격을 스스로 버리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취업연수생 제도가 이렇듯 미등록 노동자의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자, 정부에서는 단순 기능 인력의 국내 취업을 금지하던 정책에서 우회하여 새롭게 '연수취업자' 제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 또한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 채 오히려 미등록 노동자의 수만 늘려 놓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다가 미등록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2004년 8월부터 새로운 고용허가제<sup>9)</sup>를 시행하였다. 당시 불법 체류 상태에서 추방의 불안에 떨며 일을 해야 했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 제도는 희소식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기대 반 우려 반의 상태에서 시작된 고용허가제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각종 폐해를 낳고 있다.

이렇듯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제반 환경과 제도적 장치는 너무도 열악하다.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고된일을 도맡아 하면서 우리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그들

9) 고용허가제 :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 인력 도입 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동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을 같은 동료로서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우리는 지금 온갖 편견과 차별을 가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위협하는 치졸한 행태를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바다 건너 일본인이 우리의 재일동포에게 온갖 차별적 정책과 편파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여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이 땅의 또 다른 이방인들은 장래에 대한 희망조차 없이 오늘도 이 땅의 여기저기를 표류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그들 외국인 노동자, 좀더 엄밀히 말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일상적 삶이 얼마나 지난한지, 이국에서 일상을 영위하면서 그들은 어떠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일상적 고민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들의 일상적 고민 중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고민은 무엇이며 그러한 정보의 부족을 그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들이 당면해있는 정보의 빈곤이 개인적 처방을 통한 치유의 단계를 넘어서 있다면 우리 사회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금부터 우리가 참여관찰의 대상으로 선정한 조선족 노동자 H의 삶을 통해 하나하나씩 알아보자.

#### 4. 조선족 노동자 H의 삶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족 출신의 미등록 노동자인 H는 서울 근교의 건설현장에서 소위 합바집이라 불리는 건설인부용 임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H와 같이 약속한 기간동안

동고동락하기 위해 우리 연구팀의 윤유라 연구원(지금부터 '나'로 호칭)이 H를 처음 방문한 것은 2004년 가을이었다. H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에 거둬 감사를 표하면서 방문기간 내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주었다. H의 거주 공간은 합바집 옆에 마련된 컨테이너 박스 안의 2평 남짓한 크기의 작은 방이었다. 화장실과 샤워시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인부들(대부분 남자)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H는 이 점이 다소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눈치였다. 이는 아마도 합바집의 전체 공간을 H가 혼자서 관리하면서 거주하기 때문에 개인 생활에서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이로부터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나는 방문기간 동안 H의 일상적 삶을 근거리에서 밀착하여 관찰하면서 그녀와 정보행태에 대한 데이터를 꼼꼼히 수집하였다. H와의 공식적인 면담은 식당에서의 그녀의 일과가 완전히 끝나는 오후 6시경부터 매일 2시간 정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녀가 식당 일을 하는 오전·오후 동안에는 그녀의 일을 거들면서 짬짬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 그녀의 일상을 들여다보았다. 1차 방문 이후 2차 방문 전까지 나는 전화로 그녀의 근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고, 특히, 2차 방문 때에는 그녀의 소개로 그녀의 형제들과 지인들을 만날 수 있어 그들로부터 그녀의 성격과 행태 그리고 지금까지의 생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충하여 수집할 수 있었다.

H는 중국에서도 내륙지방, 내몽고에 해당하는 우란호트 3합에서 1947년에 1남4녀 중에서

차녀로 태어났다(2005년 현재, 그녀는 우리 나 이로 59세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경찰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였으며, 부지런하고 현명한 어머니 덕택으로 그녀의 형제들은 '하루세끼 쌀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 없이 성장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민족의식이 강하여 자식들에게 집안에서 만큼은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셔서 그녀의 형제들은 모두 원하는 만큼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공부를 잘 했던 H는 그녀가 원하던 만큼의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없었다. 그녀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1966년에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여파로 모든 대학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대학공부를 포기하고 H는 25살이 되던 1971년에 지금은 헤어져 남남이 된 전남편의 고향 연길로 시집을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이를 낳고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그런대로 평온한 삶을 영위하였다.

그녀의 삶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은 1989년이었다. 서울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1986년부터 중국의 조선족들에게 불어 닳치기 시작한 한국바람이 H에게도 밀려들었고, 마침내 1989년에 H는 잠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한국을 방문한 H는 소문으로만 듣던 한국의 발전상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자연스레 그녀 역시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중국으로 돌아간 직후부터 다시 한국에 들어올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개업자들이 흘리는 정보에 의하면 한국은 쉽게 많은 돈을 벌어서 빠른 시간 내에 모을 수 있는 최상의 낙원이었다. 물론 악덕 중개업자의 사기행각에 말려들어 고생했다는 사람들

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소문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지만, 한번 마음을 정한 H의 귀에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은 들어오지 않았다.

1992년, H는 마침내 한국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체류하면서 큰 돈을 벌리라 결정하고 다니던 회사에 휴직원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먼 친척이 어렵사리 만들어준 초청장을 손에 쥐고 한국 행 여객선에 올랐다. 當時 H가 아직은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15살짜리 아들을 뒤로 한 채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한 가지였다. 1992년 기준으로 H가 한국에서 받을 수 있었던 한달 월급 60만 원은 중국에서 1년 치의 월급을 능가하는 액수였다. 이처럼 좀더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과 경제적 여유를 가지면 아들의 교육만큼은 원하는 대로 시켜보겠다는 바람이 H를 몰살고 낯설은 아버지의 땅으로 건너오게 한 이유의 전부였다.

한국에 가면 단순한 일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1년만 고생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10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다 했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때는 금방 돈을 모아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냥 그렇게 추천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었어. 모르지. 내가 한국에 다녀갔던 적이 없었다면 그런 말들을 믿지 않았을지도. 한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렸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H가 탄 여객선이 한국의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함께 타고 왔던 중국인 청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청년은 다짜고짜 자신이 알고 지내



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그녀에게 권하였다.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는 각오만 있었지 마땅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H는 그의 제안에 순순히 응하였다.

직업소개소? 그런 곳에 가볼 생각도 안했어. 원래 그냥 그렇게 아는 사람들 통해서 소개를 받지 그런데 가지 않아. 처음에 배에서 내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같이 중국에서 온 사람이 다가와서 일자리를 가르쳐주고 데리고 갔어. 낯선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원래 타향에 오게 되면 같은 나라 사람 말이라면 믿게 되어 있어. 어차피 그 사람들도 나랑 같은 입장이니까. 속이기가 하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어. 딱히 정해진 일자리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들어오기만 하면 일자리가 쉽게 구해진다고 들었거든.

H는 그렇게 첫 직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식당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 중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음식을 곧잘 만들곤 했던 H는 남들보다 음식솜씨가 좋았다. 그러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식당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다. 더 많은 봉급에 잡일은 그만두고 요리만 하면 되는 자리였다. 새로운 식당의 상황과 주인의 인품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었지만 H는 이번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그 곳에서 1년 동안 주방장 생활을 하였다. H의 한국생활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던 일은 그 식당에서 불거졌다. 첫 달을 제외하고 H는 1년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월급을 잘 관리해 주겠다고 주인이 나중에는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발뺌

을 하였다. 그러나 미등록(불법) 노동자인 H는 식당 주인을 고발 할 수가 없었다.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 일을 하면서 630만원의 밀린 임금을 받아 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H는 다시 식당을 옮겼다. 그리고 그 후 밀린 임금을 받고자 기다린 세월이 10여년이었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미등록 노동자의 신분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630만원이 적은 돈이 간대? 그 돈이면 우리나라(중국)에서 10년을 벌어야 하는 돈이야. 어떻게 그 돈을 못 받고 돌아갈 수가 있겠어. 이번에는 주겠지 이번에는 주겠지 하는 맘으로 기다린 시간이 벌써 10여년이야. 얼마 전에도 그 여자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는 게 아니라고 즐 거야 아파. 그렇겠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니까.

H가 10년에 걸친 마음고생 끝에 그나마 한국에서의 생활에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은 불과 3년 전부터였다. 대학을 포기하여야 했던 자기와는 다르게 대학을 마치고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H의 동생들이 2002년에 한국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물론 동생들이 버젓한 직장을 버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갖은 고생을 하는 모습은 지금도 안타깝지만 홀로 어렵게 타국 생활을 해온 H에게 그들의 존재는 너무도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동생들과의 해후로 '안정된 마음'을 느꼈던 것도 잠시, 2003년부터 시작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을 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 당시 H도 3개월 동안 방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갇혀 지내는 어려움을 겪었다.<sup>10)</sup> 결국 3개월 만에 다시 용기를 내서 직장을 구하려 나

셨다가 이는 이의 소개로 얻게 된 직장이 지금의 함바집이었다.

H의 성격은 한마디로 '수줍음의 덩어리'였다. H가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라는 사실은 그녀의 방에서 동거하던 8일 동안 그녀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녀의 수줍음의 뒷면은 외로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나는 사람에게 대한 그녀의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면담을 하고 싶다고 내가 처음 연락을 취하고 난 후 그녀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언제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냐고 물어왔었다. 방문 첫날 부산에서 출발한 내가 그녀의 거주지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를 훌쩍 넘긴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나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갖 지은 따뜻한 밥과 정성들여 만든 반찬을 내밀던 H의 수줍어하면서도 한껏 들떠있던 모습은 지금도 나의 망막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H가 수줍음이 많다고 해서 자존심조차 없는 숙맥으로 상상한다면 그것은 오해이다. H는 비록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했지만 강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H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를 할 때에 자신이 처

부라 여기는 부분은 가끔적 입을 다물었다. 먼 친척들이 한국에 살고는 있지만 자신이 허드렛일을 하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말에서는 강한 자존심이 묻어나왔다. H가 대인관계에서 소극적 행태를 보이는 데에는 성격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또 있었다. 입을 열지 않으면 한국인으로 보이지만 말을 많이 했을 경우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 항상 두려웠기 때문이었다.<sup>11)</sup> 이처럼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발각되어 추방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그녀는 늘 염려하였다.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아버지 땅에서의 그녀의 일상적 삶은 더욱 움츠려 들고 있었다.

## 5. H의 고민과 정보빈곤

H와 함께 지내면서 나는 H가 안고 있는 일상적 고민의 대부분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라는 그녀의 체류 신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그녀를 방문하기 약 2달 전인 2004년 8월에 <외국인노동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매우 엄격해져 있었다.<sup>12)</sup> 그래서 그런지 H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컨테이너

10) 2004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불법 체류자 감소 대책에 대한 보고를 통해, 법무부, 노동부, 경찰 등 관련 부처가 불법 체류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불법 체류자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7월 21일 법무부 차관 주재로 관련 부처 국장 등 8명이 참여하여 불법 체류자 대책협의회 구성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단속키로 결정하였으며, 불법체류자의 터전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상습 불법고용주 등을 기획수사를 통해 색출하여 형사처벌 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공식 발표되면서 미등록 노동자들은 지하로 숨어들어가 숨을 죽이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11) "... 이상한 일이지. 중국을 떠나 온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중국어는 잊혀지지 않아. 그런데 한국어는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랐는데 지금도 가끔 TV를 보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참 멍하게 있을 때가 많아. 특히 전화 통화를 할 때 사람들이 너무 빨리 말을 하면 모를 때가 많아. 그래서 나는 천천히 말을 해,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대부분 내가 외국 사람인걸 알아 채 버리거든." H의 이야기이다.

박스를 잠시도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13년의 세월을 미등록 노동자로 살아왔던 만큼 이제는 자신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에 둔감해 질만도 한데, '추방'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은 그녀의 행동반경을 여전히 좁혀 놓고 있었다. 이처럼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H가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늘 상 마주치는 공사장의 인부들에게조차 자신에 관한 말을 아끼고 지내는 H이었다. H에게 있어 바깥세상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전화였고 그 대상은 가족에 국한되어 있었다. 간혹 말을 알아듣지 못해 답답하기는 하지만 TV는 세상의 소식을 알려 주는 주요한 창구였다.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 중국에도 하고 한국에 있는 동생들에게도 하고 내가 남에게 원래 피해주는 것을 싫어해서, 힘든 일이 있다 해도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말지, 사실 고민을 상담할 마땅한 곳도 없고 난 그냥 이렇게 혼자 고민하는 게 편해. 힘들면 TV나 보면서 웃기도 하고 세상사에 관한 소식도 듣고..

그렇다면 H와 같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당면해 있는 일상적 고민의 실체는 무엇인가? 먼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여러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그들이 안고 있는 일상적 고민의 일단을 파악해 보자. 다음의 표 2는 그러한 고민의 종류와 비중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미등록 외

〈표 2〉 외국인 지원단체의 상담활동 내역<sup>1)</sup>

	단체의 상담활동			
	접수건수	해결종료	미해결종료	진행중
의료	9,261	8,570(92.5)	267(2.9)	424(4.6)
임금채불	7,907	5,697(72.1)	1,354(17.1)	856(10.8)
항공권 환불	2,586	2,555(98.8)	21(0.8)	856(0.4)
쉼터·피난처제공	1,972	1,949(98.8)	21(1.1)	10(0.1)
출국관계 범칙금	1,597	1,558(97.6)	27(1.7)	12(0.8)
퇴직금 청구	1,593	898(56.4)	351(22.0)	344(21.6)
산업재해	1,585	1,405(88.6)	107(6.8)	73(4.6)
법률상담	1,191	946(79.4)	211(17.7)	34(2.9)
폭행처리	639	479(75.0)	153(23.9)	7(1.1)
사망사고처리	310	288(92.9)	1(0.3)	21(6.8)
다른 상담소 이관	110	84(76.4)	8(7.3)	18(16.4)
성폭행 처리	95	64(67.4)	31(32.6)	0(0.0)

- 12) 처음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한국어 교실에 나가던 날, 우리는 선생님들에게서 푸념 아닌 푸념을 들을 수 있었다. 각반에 수강생들이 눈에 떨 만큼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었다. 원래 수업을 듣기 위해 나오던 수강생들 중에 미등록 노동자였던 사람들이 혹시 모를 검문을 피해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주말마다 유일하게 누리던 종교의 자유도 얻지 못하고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게 된 것이었다. 더욱 음지로 숨어들어야 하고 더욱 차별받아야 하고 더욱 소외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 13) 설동훈, 『외국인근로자 상담사례집』, 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pp68-69의 표를 재구성.

국민 노동자가 안고 있는 일상적 고민의 뿌리는 '돈을 버는 것'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前者와 관련하여서는, 마땅한 직업을 얻는 것에서부터 일단 직업을 얻고 나서도 상사나 동료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받으며, 심지어 임금착취나 금전사기와 같은 생존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다. 後者와 관련하여서는 의료보험이나 산업재해보험 같은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유일한 자산인 몸뚱이를 사고로부터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일상적으로 고민이 되며 늘 붙어 다니는 것이다.

H가 일상적으로 안고 사는 고민도 일반 미등록 노동자들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 역시 '돈버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여러 번 겪어 왔으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10여 년 전에 체불된 임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지금은 다행히도 인품이 '넉넉한' 식당 주인을 만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지만 직업의 불안정에서 오는 불안감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한편, 건강 또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점차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낀 지 오래 되었다. 하긴 내일모레면 환갑의 나이인데 노구를 끌고 공사장에서 식당일을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디 한군데 성한 데가 있을까 싶다. 그래도 지금은 그런대로 견디어 낼만 하단다. 앞으로가 문제이지...

그러나 한국생활 13년이 되어가는 H에게 있어 직업이나 건강 못지않게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며 외로움이다. 합바집의 일이 끝나면 컨테이너 앞 넓은 의자에 앉아

멍하게 서쪽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일과가 된지 이미 오래이다. 특히, 고향에 두고 온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늘 뼈에 사무친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얼마 전 동생들과 의논하여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기로 마음을 굳혔다. 대구에서 살고 있는 동생들이 알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 그녀의 마음은 그 일이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애절함과 초조함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듯 애절함, 초조함,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불안감은 H의 일상에서 항상 붙어 다닌다. 그러한 감정의 뿌리와 실체를 하나하나 더듬어 가다보면, H가 한국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상적으로 겪어온 고민의 실체가 벌거벗은 몸뚱이를 드러낸다.

#### ① 생존을 위한 발버둥: 직업 찾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 수는 없지만 H는 구직에 대한 고민을 그다지 심각하게 하진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H이기에 자신의 어려웠던 기억을 회상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직업을 구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그녀의 말이 그녀가 원하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언제나 구해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에, 지금까지 그녀가 경험해온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H의 직업 관련 고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과정을 추적하였다.

먼저, 직장을 구함에 있어 H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사람을 믿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H가 한국에서 얻은 첫 번째 직장이 인천항에 도착한 바로 그날 말을 걸어왔던 낯선 청년에 의해서였다는 것은 이런 면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H의 원칙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아니었다. H가 만난 두 번째 사람(두 번째 식당 주인)은 H의 믿음을 여지없이 허물어 놓았다. 두 번째 경험으로 인해 H의 행보가 조심스러워 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쉽게 믿는 H의 천성이 어디로 간 것은 아니었다. H는 지금도 “밀린 임금 630만원을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식당주인 남편의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다. 내가 혹시라도 그 주인이 끝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H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두 팔을 내저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넌지시 전네었다. H 역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였다. 그렇지만 H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통해 어떤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어디에 그러한 지원센터가 존재하는지 위치와 전화번호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단지 막연하게 주위 사람들에게서 그런 지원 단체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최후의 수단으로 그곳의 도움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금만 나가면 그런 곳이 많다고 해.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단체 같은 거 말이야. 거기 가서 말하면 돈을 받아준다고 했어. 지금 내가 당장 한국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법적으로 나를 고발하

더라도 출국 전에 돈은 받아준다고 들었어. 그런 걸 어떻게 알았냐고? 왜 그걸 몰라. 내가 직접 찾아가진 않았지만 전화로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은 나보다 동생이나 제부가 더 난리야. 빨리 받아내라고 가끔 동생과 통화를 하면 너무 흥분들 하나까 차라리 이 얘기가 나오면 내가 슬그머니 전화를 끊어버려.

이처럼 H와 같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삶의 궤적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 대부분이 개인적 소극성과 사회적 제약에서 비롯되는 정보장애로 인해 부정확하거나 편협한 정보만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업을 구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공식적인 기관을 통한 취업의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H처럼 빈약한 인맥이나 브로커에 의존하여 직업을 찾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얻게 되는 직업은 신뢰성과 안정성 면에서 항상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미등록 노동자는 소개 받은 직장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정적인 곳인가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안게 되며, 막상 일을 시작한 후에도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늘 안고 있으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버티어 내야 하는 것이다.

14) 출입국관리국에서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근절을 위해서 적발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강제추방과 몇 년간 한국에 재입국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조치와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사업주와 행동 유발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되며 상습적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알선하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법령을 선포하였다.

## ② 유일한 재산, 건강 지키기

H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먼저, 건설현장을 벗어나서 조금만 걸어가면 마을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가 있는데 매일 그곳에 나가서 한 시간씩 꾸준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다. 다음은 TV에서 방영하는 건강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하는 것이다. 시청 도중 자신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방법이 나오면 메모를 해 두는 습관을 H는 기르고 있었다. 가벼운 병에는 어떤 민간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매일 잠깐씩 지킬 수 있는 건강 유지법은 무엇인지, 나아가 응급 상황에 처하면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노트에 적어놓고 있었다. 이처럼 H에게 TV는 삶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건강정보를 제공해 주는 유용한 정보소스이기도 하였다.

언젠가부터 그랬어. TV를 보다가 저런 좀 쓸만한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적어놓지. 나중에 어떻게든 쓸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어디가 요즘 좀 안 좋다 말하면 거기서 나온 걸 하나씩 말해주곤 해. TV에서는 다들 잘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 이니까 믿을 수 있겠지. 여기서 아프면 안돼. 그러면 곤란한 일이 많아져. 그래서 항상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나는 H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진료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H는

무료 진료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듯 하였다. 그러나 거기를 찾아 가는 것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참가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는 나이가 있으니 갑자기 아플지도 모르므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어디서 어떤 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놓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재차 권유하였다. 그러나 H의 대답은 늘 그랬던 것처럼 막연하였다.<sup>15)</sup> 필요하게 될 때 찾아나서도 늦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H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H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 실제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숙지하였다가 그것을 활용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막상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방법을 찾아 해결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만을 되풀이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 ③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움과 외로움

H에게는 금쪽같은 아들이 하나 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어렵게 얻은 자식이기에 H에게 말 그대로 금이야 옥이야 같은 존재였다. 아들이 15살이 되던 해에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며 떠난 것이 벌써 13년이 되었다. 그동안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여 27살의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였다. H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겠지만 함께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인지 눈가를 붉게 물들이곤 하였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15) “애써서 알 필요 없어. 요기 지나가다 보면 그런 말 많이 해. 무료로 치료해 주는 곳이 있다는 것은 들었어. 이 근처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요 근처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찾으려고 생각하면 쉽게 찾게 되어있어...”. H의 이야기이다.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하기에 그리움은 더욱 사무쳐 곁에 배었다. 더군다나 부모의 이혼과 조모의 죽음마저 혼자 감당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항기 한번 거치지 않고 조용히 자기 몫을 해온 아들이기에 너무도 고맙고 미안한 것이다.

한국에서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디 자식이 그런 부모의 심정을 알간데.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건데. 들어보니까 보내주는 돈으로 공부는 안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런 걸 알아도 부모가 여기서 뭐가 할 수 있잔데. 자식 걱정만 늘어가는 거지. 다행히도 우리 아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 한 것 같진 않지만 나쁜 길로 빠지진 않았어. 지금도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다니고 있어. 혼자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잘 이겨내 주어서 고마울 뿐이야.

한국인의 유전자 탓인가? 이제 그만 중국으로 돌아가 그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경제적 여유도 찾고 27살의 아들에게 의지하면서 편안하게 살아도 될 듯싶는데, H는 지금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여기서 대학을 마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니 계획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D대학에 사비 유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하였다. H는 내년 1월에는 아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눈치였다. 그러면서 아들은 중국에서, 자신은 한국에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알아보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떻게 알아보냐고? 전화가 있잖아.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되는데 뭐. 이쪽저쪽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있어. 그리고 우리 동생들이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고 있어. 중국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중이고..

처음 H에게서 전화를 걸어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는 그녀가 직접 해당 대학에 전화로 문의를 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D대학의 입학시기와 이들의 전공을 묻는 나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그녀를 보면서 H가 전화를 건 대상은 다름 아닌 그녀의 동생들과 아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들이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을 재정적으로 뒷바라지해야 하는데도 H가 아들의 유학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은 800만원의 수속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 뿐이었다. H는 아들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스스로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H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예측만을 가지고 시작하기에는 일이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았다. 물론 동생들이 나서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니 그나마 마음이 놓였지만 혹시 또 다른 낭패나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H는 아들뿐만 아니라 큰 언니도 초대하려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 하였다. 그러나 초청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듯 싶었다. 신분보증을 서겠다는 한국인 스폰서를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긴, 자신이 보증을 서서 초청장을 만들어 보내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체류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오지도 모르는데 가까운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누가 보증을 서겠다고 선 뜻 나서겠는가? 앞서 H의 두 동생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H가 염치를 무릅쓰고 한국인 친척에게 부탁하여 초청비자를 만들어 보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시 부탁하기에는 염치가 없었다. 그렇게 들어온 두 동생 역시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기고 한 동안 불법 체류자로 지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많게는 2천만원을 호가하는 수수료 앞에 희망을 접고 말았다. 그러다가 지금은 H보다는 모든 일에 적극적인 동생들이 나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을 설득하고 있으며, H는 그 작업에 필요한 '돈'을 대고 있는 중이었다. H를 한국으로 오게 만든 목적이었으며 지난 10여 년간 갖은 고생 끝에 마련한 '돈'이었지만 자신의 삶에서 외로움과 그리움을 털어내고자 하는 H의 갈망 앞에서 이제 '돈'은 한갓 수단에 불과해 보였다.

## 6. 정보빈곤의 발생 요인

일상에서 고민이나 문제에 봉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혹은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한다. 특히 H처럼 혈혈단신 물설고 낯설은 타지로 이주하여 정착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유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한발 앞선 경험과 지혜는 '적응과 정착'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정보가 된다. 그러나 H의 경우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에 더해 내성적인 성격과 소극적인 행태로 인해 유사한 처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동생들에게 의지하게 되기 전까지 홀로 고민하고 홀로 해결을 시도하다가 장애에 부딪히면 체념하고 마는 것이 H의 일반적 행태였다. H의 그러한 행태를 관찰하면서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특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과 정착'을 시도하면서 봉착하는 보편적 고민과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보빈곤이 주로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즉, 정보빈곤의 발생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개인적 변수 못지않게 그들이 처해있는 정보환경의 열악함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H의 경우 특히 안타까웠던 것은 정보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정보소스로부터 자신이 소외되어 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H는 그녀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소스가 주변에 존재하고 그러한 정보소스에 대한 접근에 실질적인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여 활용하려는 노력을 좀처럼 하지 않았다. 가령, 막대한 자금을 들여 아들을 국내 대학에 유학시키려고 시도하면서도 보다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정보소스에 접근하려 하기도는 우연히 듣게 되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행태를 보였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무료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지만 그곳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 보다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때에나 찾아보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객관적 정보소스의 존재와



합리적 정보의 가치에 대한 그녀의 무지와 무관심은 '홀로서기'식의 그녀의 삶의 태도와 더불어 그녀를 정보빈곤에 처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 되었다.

개인적인 변수가 정보빈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현상은 H의 동생들의 사례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H는 동생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거렸는데, 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한 동안은 불법 체류자로 지냈지만 지금은 어엿하게 합법적 체류자가 되었다고 자랑을 했다. 2004년 8월에 새로운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미등록' 상태로 머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합법적 체류자'로 신분의 전환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sup>16)</sup> 그러나 H의 동생들이 H처럼 소극적인 성격이며 혼자서 고립되어 생활하는 행태를 보였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H의 동생들이 고용허가제의 실시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만으로는 '고용허가제'가 어떤 형태로 자신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기 힘들었다. 이에 이때부터 H의 동생들은 신문자료 등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유사한 처지에 있는 조선족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그들은 특히 이에 그치지 않고 직접 관공서에 문의를 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일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sup>17)</sup>

H의 동생들의 이러한 사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개인적 변수가 그들의 정보행태는 물론이고 정보빈곤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H의 동생들은 대학교육을 마치고 교사로 재직했던 만큼 합리적 정보와 객관적 정보소스의 가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조선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한국어 교육을 받았던 터라 한국어 정보소스에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 언어의 장애도 거의 없었다. 만약 H의 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한국어를 하지 못했다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각종 자료를 구하여 참조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찾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그들의 인지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던 것이다. 더불어 그들이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유사한 처지에 놓여있으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그들 주변의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그들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고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또 하

- 
- 16)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불법 체류자 합법화 신청대상자는 2003. 3. 31. 기준 국내 총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자로서 신청일 당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연근해어업·농축산업의 사업장에 취업중인 자였다. 그 중 건설업, 서비스업(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의 동포에 한해서만 취업이 허용되었다.
- 17) 그러나 H는 동생들과 달랐다. 건설현장에서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녀가 마음을 터놓을 만한 대화의 상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식사 제공과 관련된 것 이외에 건설현장 인부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H의 이렇듯 소원한 대인관계는 유사한 처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과는 거의 접촉이 없었으며,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그들을 통해 얻으려는 의도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나의 사실이 있다. H나 H의 동생들과 같은 조선족의 경우 주류 사회에 접근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타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언어의 한계와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인해 주류 사회의 정보소스에서부터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이 법망을 피해 음지에서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다보니 주류 사회의 정보소스에 접근하기는커녕 그들끼리 서로 만나 의사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빈곤 현상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매우 배타적인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결국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정보빈곤은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상태로 화하게 된다. 그들 중의 일부는 도시의 외곽지대에 끼리끼리 모여 살면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보니 불확실한 정보나 소문에 의존하여 '생존'을 위한 의사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태가 보편화되는 것이다.<sup>18)</sup>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러한 고충과 애환에 얼마나 귀를 기울

이고 그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는가? 2005년 현재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들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지원단체의 대부분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80%를 점하는 미등록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sup>19)</sup>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보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0)</sup> 여기에는 물론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정보마인드의 부족 또한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곤경에 처해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이며 물리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주력하다보니 외국인 노동자 집단이 생존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지원단체들의 활동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를 위한 버젓한 의사소통의 도구나 場 하나 아직까지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18) 그러다보니 불확실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취업 알선에 의존적이 되고 취업의 과정이나 취업이후에도 복지는커녕 인권조차 유린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9) 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다음의 말은 '미등록 노동자' 문제에 관한 그들의 딜레마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지원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단속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눈치입니다. 지원센터에서 이런 사람들까지 돕기 위해 애를 써야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들을 위한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하신다니 기대가 됩니다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법적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그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그나마 있었던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딜레마라 할 수 있습니다."

20) 2005년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159개(2003년 10월 기준)의 각종 단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 중에 일상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지원단체나 정보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 그러한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단체들조차 정보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의 생존을 위한 정보의 소통은 더욱 단절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정보빈곤의 깊은 늪으로 더욱더 빠져들고 있다.

## 7. 논의를 마무리하며

이 논의의 마무리는 당연히 H와 같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복지적 차원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장기적인 노력을 요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해 거창하게 논의하기 보다는 그들의 일상적 고민을 해결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히 정보제공의 측면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H의 삶을 지근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장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각종 지원단체의 활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상적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여기서는 현재 활동 중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정보복지를 위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면하는 고민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상담사

를 검색하면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바로 지원단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불씨가 커져서 견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원단체의 상담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것은 이 연구의 관찰대상이었던 H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행태였다. H의 행태를 관찰하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첫째는 자신이 봉착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기관 혹은 단체의 존재와 위치 혹은 접근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막상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급박해 지기 전까지는 쉽게 다가가고픈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관련 각종 지원단체들은 그들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담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연구팀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절박한 상황에 봉착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원단체’는 도움을 얻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이들 지원단체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구조적인 정보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소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지금도 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이라는 방식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이들이 상담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질에 있어서 일정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sup>21)</sup> 심지어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문자를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상황도 간혹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센터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정보의 제공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주제별 전문인력과 정보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현재 활동 중에 있는 지원단체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특징은 각 단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면하는 다양한 고민에 대처하고자 '독립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민의 유형은 다양하다. 그러나 상주 근무자가 4-5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전문 지식을 갖춘 근무자가 부족한 지원센터의 현실을 고려하면 다양한 유형의 고민에 지원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며 그 효율성마저 의심스럽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원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보인다.<sup>22)</sup>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 집단을 위한 정보탐색과 의사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려면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단체별로 확보된 인력의 전문 영역을 고려하여 특화된 정보

서비스의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개별 지원단체의 정보제공능력을 전문화하고 나아가 이들 지원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통합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sup>23)</sup> 다양한 고민을 안고 지원센터를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 지원단체의 존재와 역할 그리고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의 중요성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의 존재 유무가 알려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서 문제는 홍보의 방법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인터넷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그릇된 풍조가 퍼져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들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대부분이 화려한 홈페이지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실제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가 얼마나 생뚱맞은 짓인지 금방 드러난다. 실제로 연구의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본 외국인 노동자 중에 인터넷을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지원센터를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인터넷의 홍보물이 아니라 친구나 동료의 소개로 지원센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

21)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평균적인 인적 구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52.2명의 인원 중에 실무자는 4.6명으로 나머지 47.6명이 자원봉사자이거나 단순 후원회원이다. 이것은 단체의 운영의 많은 부분이 비실무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로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설동훈 (2003) 앞의 글, p.28)

22) 2004년 현재, 외국인 지원단체들이 모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라는 이름의 협력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회에 소속된 20개가량의 지원단체들은 서로의 서비스 영역에서 노하우나 전문 정보를 공유하기 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주력하고 있다.

23) 이렇게 협력을 통해 각 지원단체들이 다루어 왔던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례별 DB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지원단체들이 공유하게 될 때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는 인터넷이 아니라 인적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정보 유통 경로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이제 이쯤에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자.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새로운 지원단체를 결성하거나 기존 지원단체 참여하여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바치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그들이 있기에 척박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정신적으로 윤택하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배전의 효과를 얻으려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절실히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조사하여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sup>24)</sup> 우리는 이 연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정보적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비록 이 연구가 규모와 성격에 있어 pilot study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 논의한 사안들은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처해있는 정보환경에 대한 사려 깊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연구팀의 다음 작업은 다양한 성격의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연구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보행태와 정보빈곤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의 정보환경과 정보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유미, 2004. 외국인력 고용 현황과 정책 변화. 『민족연구』, 2: 17-34.
- 김명희, 2003. 한국내 조선족 정체성과 한국관. 『계간사상』, 가을호: 183-201.
- 김환철 외, 2000.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관리정책. 『행정문제연구』, 8(1): 133-153.
- 권혁근, 2003. 외국인노동자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釜山法潮』, 20: 168-174.
- 석현호 외, 2003. 『외국인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지식마당.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설동훈, 2001.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와 대책. 『인권과 평화』, 2(1): 53-87.
- 설동훈, 2001. 한국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대책. 『신학사상』, 113: 49-75.
- 송병준 외, 1997. 『외국인노동자 현실과 미래』.

24) 실제로 지원단체들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지원단체들이 주력 사업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활동은 선교·포교(36.4%),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 지원(18.2%), 한글교육(13.6%) 등이었으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바라는 서비스 영역은 의료지원(60.6%),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56.6%) 등으로 나타났다 (설동훈(2003), 앞의 글, p.72). 이 연구의 관찰 대상인 H의 경우도 종교적인 문제보다는 임금체불 문제를, 공동체 지원과 같은 활동보다는 건강관련 정보의 제공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원단체들이 주요 사업을 결정하기에 앞서 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가 선행될 때 그들의 노력이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 양심영 외. 1998. 소외계층 청소년의 정보격차. 『한국청소년연구』, 13: 321-354.
- 이제환 외. 2004.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행태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273-295.
- 이제환 외. 2004. 재일한인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관서지역 거주 한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221-248.
- 이제환 외. 2005. 동경지역 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오사카 지역 한인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91-116.
- 한국정보보호센터. 2000. 『2000년 정보화 역기능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정보보호센터.
- 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외국인근로자 상담 사례집』. 한국국제노동재단.
- 한국국제노동재단. [2004.11.1]  
<<http://www.koilaf.org/>>